



KITA SINGAPORE
<http://sg.kita.net>
 Tel:65-6323-1161

동남아 NEWSLETTER

제49호

2008년 8월 29일(금)

동남아 뉴스레터 하이라이트

- * **싱가포르** : 7월 수출저하로 경기침체 우려 / 고용주들, 개선된 결혼 및 자녀출산 패키지 정책에 엇갈린 반응 / 상반기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7.1% / 대학교육 개혁으로 엘리트 인재 육성
- * **베트남** : 철강 및 시멘트 수요부진으로 가격 하락 / 신규 세금우대 조치로 사립병원 증설 기대 / 남부 빈곤횜역에 시멘트 공장 설립 / 8월 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28% 상승 / 일부식품, 소비재 수입을 허가제로 전환 - 무역적자 완화책
- * **인도** : 중국 코크스 수출관세 인상 -인도 철강업계 타격 / 물류산업 매년 15~20% 상승 전망: 물류단지 증설 / 타타 모터스, Nano 전기 자동차 생산 계획 / 첸나이, 콜카타 두 공항 확장 프로젝트 승인
- * **말레이시아** : 7월 인플레이션 8.5%, 연료가격 인하 / 팜오일 가격 하락으로 바이오디젤 수출 증가 / 08년 상반기 수출 15.5% 증가 - 팜유, 원유 수출이 기여
- * **인도네시아** : 쇼핑센터, 정부의 강제 전력 절감계획에 반대 / 의약품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의약품 가격 급등 / GM社, 아세안 생산기지 인도네시아에 건설 / 해양심층수 이용한 생수 제조 개시
- * **태국** : 금년 수출 성장률 20% 이상 기대 / 마늘 및 차량용 천연가스, 정부 가격통제 리스트에 포함
- * **미얀마** : 미얀마, 북한에 고무수출 / 천연가스 수출 25% 급증
- * **기타** : 아시아 무역통계 (1~7월)

□ Trade and Business News Highlights

<싱가포르>

- 7월 수출저하로 경기침체 우려
 - 6월 11% 감소에 이어, 7월 비석유부문 수출 실적이 또 다시 5.7% 가량 축소
 - 지속적인 전자제품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 전년동월대비 14% 감소
 - 연속적인 수출 감소, 2/4분기 GDP 성장률 2.1%의 저조한 실적 등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경기침체 우려
 - 전체 무역액은 21% 상승한 US\$643억 (S\$880억)
- 고용주들, 개선된 결혼 및 자녀출산 패키지 정책에 엇갈린 반응
 - 8월17일 National Day Rally 리셴룽 총리의 연설 중 발표된 결혼 및 출산 패키지 개선 내용에 일부 고용주 우려 표명
 - 동 정책은 싱가포르 국민들의 가족형성 및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여성 근로자의 산후휴가 연장 (현 12주에서 16주), 산후휴가 8주간 직원급여 정부지원, 베이비 보너스 금액 인상, 세금공제액 확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6일 유급휴가 지급 등을 포함
 -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동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주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회사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함.
- 상반기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7.1%
 - 싱가포르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기록
 - 소득계층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고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 그룹의 물가상승률은 6.9%, 저소득층 그룹의 상승률은 약 7.4%에 달함.
 - 물가상승에 주요 원인으로는 식품, 주택, 교통통신 부문 가격 인상과 GST 상승도 일부 원인으로 분석됨.
- 대학교육 개혁으로 엘리트 인재 육성
 - 정부는 전문 인재 수용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공립대학설립을 포함한 대학교육 개혁을 발표. 대학진학률 상향 및 외국유학생을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엘리트 인재 육성

- 리센룽 총리는 공립대학 진학자수를 종래 2010년까지 25%로 목표를 설정했으나 2015년 까지 30%로 상향 조정. 공립대학진학률은 80년 5%, 91년 14%, 07년 23%로 상승
- 이를 위해 기존 싱가포르국립대학(NUS), 난양공과대학(NTU), 싱가포르 경영대학(SMU) 등 기존의 3개 대학 정원을 늘리고 새로운 공립대학을 개설하기로 결정
- 새로 개설하는 대학은 2011년에 개교할 예정이며 학생 수는 2,000~2,500명 수준

<베트남>

○ 철강 및 시멘트 수요부진으로 가격 하락

- 철강과 시멘트가 지난 2주간 수요부진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
- 연초에는 철강가격이 두 배 가량 올라 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준 바 있었으나 상황이 바뀌고 있는 추세. 현재 우기로 접어들면서 건설이 잠정적으로 중단 되고 신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어 철강, 시멘트 수요가 급감한 때문

○ 신규 세금우대 조치로 사립병원 증설 기대

-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관련 업체에 적용될 세금우대로 인해 사립병원 및 외국인투자 병원이 증설될 것으로 기대
- 신 법인세법으로 건강관련업체의 법인세는 현행 28%에서 10% 할인된 18%만 적용될 예정
- 또 이 업종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현재의 법인세 2년 감면, 9년간의 50% 할인 혜택 대신, 4년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됨.

○ 남부 빈푹지역에 시멘트 공장 설립

- 베트남 남부 빈푹에 연간 2백만 톤 생산가능 시멘트 공장 설립 예정
- 지방정부는 An Phu 시멘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기간은 33개월로 2011년 완공 예정. 이 프로젝트로 인해 약 1,4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 8월 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28% 상승

- 베트남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대비 1.56%,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 상승주요 원인으로는 석유가격 급등으로 인한 운송비 인상, 우편업무 서비스

9.07% 상승 등

○ 일부식품, 소비재 수입을 허가제로 전환 - 무역적자 완화책

- 상공청은 8월 1일 일부 식품이나 소비재 등을 수입할 때는 상공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결정24호를 공포. 동 규정은 관보게재일로부터 21일후에 시행되며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

* 대상품목

- ▶ 식품: 야채, 커피, 동·식물유, 고기류, 어패류, 설탕, 과장, 곡물, 유제품
- ▶ 기타: 플라스틱, 고무제품, 향수, 화장품, 섬유제품, 유리, 가전제품, 발전기, 시계, 휴대전화, 완구, 스포츠용품, 완성자동차 등
- 동청은 신청서류 접수 후 10일 후에 허가서 발행
- 대상품목은 식품이나 사치품 등 소비재가 대부분이며 생산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동 결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

< 인도 >

○ 중국 코크스 수출관세 인상 -인도 철강업계 타격

- 중국이 코크스 수출관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15% 포인트 인상발표. 중국의 관세인상조치로 인도의 철강업계 긴장
- 코크스는 철강재 필수 원재료로, 인도 철강업계는 전체 코크스 수입 중 1/3 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중국 코크스는 폴란드, 터키 제품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철강업계가 저렴한 철강 생산이 가능했으나, 수출관세 인상으로 더 이상의 가격 면에서 이점이 없어지게 됨.
- 중국은 과다 에너지 사용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코크스의 수출을 줄이고자 이 같은 관세인상 결정을 내림.

○ 물류산업 매년 15~20% 상승 전망: 물류단지 증설

- Cushman and Wakefield社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의 물류산업이 해마다 15~20% 가량 상승하며 2015년까지 US\$3,850억의 소득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2년까지 3,500에이커 부지에 약 US\$10억에 달하는 110개의 로지스틱 파크 운영 및 약 4천5백 평방미터의 저장창고가 준비완료 될 예정

- 최근 뭄바이는 로지스틱 파크 개발 선호 도시로 떠오르며 US\$2억 상당의 투자로 약 600에이커에 6~7개의 로지스틱 파크가 개발될 예정. 이외에 콜카타, 첸나이 등은 기존의 항구, 철도, 도로 등이 잘 개발된 도시들로, 추후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기대됨.

○ 타타 모터스, Nano 전기 자동차 생산 계획

- 인도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타타모터스는 세계 최저가 차량(US\$2,600), 전기 자동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 조만간 노르웨이 전기자동차 전문업체인 Miljøbil Grenland사와 손잡고 E-nano를 생산할 예정
- 타타 나노는 에어컨, 자동문, 파워핸들 등이 장착되지 않은 기본 구조로 된 623cc의 소형 국민차임. 판매는 올해 말 즈음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동 가격의 지속적인 판매여부에 회의적임.

○ 첸나이, 콜카타 두 공항 확장 프로젝트 승인

- 첸나이공항 근대프로젝트는 국내선 터미널 신설, 국제선 터미널 리노베이션, 제2활주로 연장 등이 포함
- 콜카타 공항 근대화는 30개월 공기(工期)로 연간 2천만 명의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
- 인도는 대도시 공항정비가 진행 중인데 이미 남부의 하이데라바드와 뱅갈로어의 신공항이 완성되어 가동 중이며, 뉴델리와 뭄바이는 현재 공사 진행 중임. 첸나이, 콜카타 두 공항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인도 6대 도시의 공항정비가 완료

< 말레이시아 >

○ 7월 인플레이션 8.5%, 연료가격 인하

- 말레이시아의 7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8.5%를 기록하며 분석가들의 예측치인 7.8%를 상당히 상회함.
- '81년 12월의 8.5% 기록 이후, 최대 급상승 기록에 정부는 인플레이션 진정의 일환으로 연료가격 인하를 발표함 (8월23일부터 발효)
- 5월 3.8%만을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6월 석유가격 인상, 7월 전기료 인상 단행으로 결국 8.5%까지 치솟게 됨.

- 높은 인플레이션 기록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년 연속 3.5%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팜오일 가격 하락으로 바이오디젤 수출 증가

- 저렴한 비용의 팜오일 생산 가능에 힘입어 말레이시아의 올해 바이오디젤 수출량이 약 50% 가량 상승한 143천 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
- 팜오일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베지터블 오일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팜오일 가격이 현재의 시세만 유지한다면 바이오디젤 수출 목표달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08년 상반기 수출 15.5% 증가 - 팜유, 원유 수출이 기여

- 수출은 주력품목인 전기 전자제품은 답보상태였으나 가격이 오른 팜유, 원유 수출 증가로, 총 15.5% 증가. 수입은 8.3% 증가
- 팜유 및 동제품이 전년동기 보다 81.7%, LNG 29.6%, 석유제품 79.4% 증가
- 최대수출국은 싱가포르, 미국, 일본, 태국 순이며 최대수입국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태국 순

< 인도네시아 >

○ 쇼핑센터, 정부의 강제 전력 절감계획에 반대

- 정부가 추진 중인 매주 10시간동안 자체 전력공급 규정에 쇼핑센터들이 추가 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섬.
- 신규법령은 개인 사무실, 호텔, 쇼핑센터들이 약 10~20% 가량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해 쇼핑몰, 호텔, 개인 사업체들은 자체비용으로 10시간씩 전력공급을 하도록 규정함.
- 쇼핑센터협회는 임시휴업과 규정 반대시위를 펼칠 것도 고려중에 있음.

○ 의약품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의약품 가격 급등

- 인도네시아 의약품 협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유명 의약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발표
- 인도네시아 의약품 업계는 원재료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원재료 가격은 금년 초부터 50~100%까지 오르고 있으며, 의약품 가격은 5

~10% 정도만 인상됨.

- 인도네시아의 의약품 원재료 수입액은 연간 US\$6억5천2백만에 달함. 총 수입물량중 약 80%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며, 나머지 20%는 유럽에서 수입
- 중국은 원재료 수출 장려금 인하, 환경규제 강화, 최저 임금 인상, 중국통화 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원재료 가격을 인상하고 있음.

○ GM社, 아세안 생산기지 인도네시아에 건설

-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GM社가 인도네시아에 아세안 지역 MPV (Multi-purpose vehicles) 생산 기지를 둘 것이라고 발표
- GM은 서자바에 연간 2만 대의 Chevrolet Blazers를 생산하다가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
- 인도네시아 정부는 GM이 공장 재운영을 위해 약 US\$2억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 GM은 본 공장 운영을 재개하여 Chevrolet Aveo, Chevrolet Captiva, Chevrolet Estate 세 종류의 MPV 모델 생산 예정

○ 해양심층수 이용한 생수 제조 개시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미네랄 생수 제조를 시작한다고 발표
- 일본 오메가 그룹의 해양심층수 증류 공법을 이용하여 10월부터 판매 및 마케팅이 시작될 예정. 시작단계로 일일 1천병 씩 생산 예상

< 태국 >

○ 금년 수출 성장률 20% 이상 기대

- 태국 수출입은행은 상반기의 수출호조 여세가 기대이상 지속되어 올 한해 수출 성장률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
- 상반기 수출실적은 23.1% 상승한 US\$872억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는 상공부의 전망 수치인 12.5% 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
- 태국은 신흥 수출시장 선적량이 증가하여 아프리카에 60.5%, 인도차이나의 57%, 동유럽 31.8% 상승을 기록함.
- 주요 수출품목은 시멘트, 서적 및 프린팅, 제지, 화학약품, 보석 및 장식품 등

○ 마늘 및 차량용 천연가스, 정부 가격통제 리스트에 포함

- 중국에서 밀수입된 마늘로 인해 마늘 가격의 급락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차량용 천연가스와 함께 마늘도 정부가격통제 품목으로 포함. 이로써 정부가격 통제 품목은 총 37개로 늘어남.
- 정부가격통제 품목은 설탕, 인스턴트 커피, 요거트, 팜오일, 쌀, 전지분유, 우유, 연유, 비료, 농약, 비누, 세제, 샴푸, 자동차 타이어, 시멘트, 전선, LPG, 펄프 및 종이, 펠릿, 의약품, 돼지고기 등을 포함

< 미얀마 >

○ 미얀마, 북한에 고무수출

- 북한과의 외교관계 회복 후, 미얀마는 북한과의 고무수출 계약을 체결함.
- 미얀마 고무생산협회는 5년에 걸쳐 약 1만여 톤의 고무를 북한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1차 물량은 10월에 선적 예정

○ 천연가스 수출 25% 급증

- 07년 회계년도 천연가스 수출, 25% 증가한 US\$25억 기록
- 미얀마 근해 천연가스 발생지는 이웃 나라 태국의 에너지 공급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태국은 미얀마 천연가스의 20% 가량을 공급받고 있음.

< 기타 >

○ 아시아 무역통계

(단위:US\$ 백만)

순위	국가명	수 출				국가명	수 입			
		2007 금액	증가율	2008(1월~7월) 금액	증가율		2007 금액	증가율	2008(1월~7월) 금액	증가율
	합계	188,790	12.1	132,793	27.00	합계	170,549	16.8	122,210	27.30
1	중국	81,985	18.0	57,332	27.90	중국	63,028	29.8	46,341	32.00
2	일본	26,370	-0.6	17,291	16.00	일본	56,250	8.3	37,427	16.60
3	홍콩	18,654	-1.7	11,925	15.40	인도네시아	9,114	3.0	7,598	55.00
4	싱가포르	11,949	25.9	10,371	56.30	대만	9,967	7.3	6,768	23.10
5	대만	13,027	0.2	7,486	-0.60	말레이시아	8,442	16.6	6,059	20.70
6	베트남	5,760	46.7	5,373	75.00	싱가포르	6,860	16.5	5,074	32.30
7	인도	6,600	19.3	5,155	43.80	인도	4,624	27.0	4,091	60.10
8	인도네시아	5,771	18.4	4,625	35.00	태국	3,769	13.2	2,296	5.30
9	말레이시아	5,704	9.1	3,527	13.40	필리핀	2,438	11.5	1,854	35.50
10	태국	4,488	5.7	3,497	34.90	홍콩	2,142	2.0	1,378	15.70
11	필리핀	4,420	12.5	3,034	28.30	베트남	1,392	50.5	1,211	48.70
12	방글라데시	612	-5.7	631	87.30	브루나이	935	-22.5	981	93.70
13	우즈베크	748	15.2	587	37.70	파키스탄	491	44.0	443	78.00
14	파키스탄	678	0.7	535	35.50	우즈베크	104	159.2	210	540.60
15	스리랑카	186	-3.7	378	277.20	카자흐	257	-6.9	203	28.10
16	카자흐	546	68.6	206	-34.40	미얀마	81	-16.3	90	67.10
17	캄보디아	281	37.2	185	29.60	방글라데시	142	105.9	86	10.60
18	몽골	170	53.9	148	64.60	스리랑카	47	22.2	36	32.90
19	아제르바이잔	130	175.2	129	159.30	몽골	21	221.9	25	186.60

※주 : 2008(1~7월)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자료: www.kita.net)